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민정* · 강재정** · 서용건***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국문요약

오늘날 세계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문화 접촉을 통해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 혹은 쇠퇴해 나간다. 더불어 사람들이 이문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인지의 정도도 달라지며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사람들의 이문화에 대한 혹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한다.

본 연구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인지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제2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며, 더 나아가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이문화의 인지도에 따라서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어릴 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이를 토대로 이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올바른 태도를 신장하여 국제 사회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 이문화 인지도(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외래 관광객(International Tourists), 태도(Attitudes)

I. 서론

오늘날 세계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점점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여행, 문화 교류 및 이민을 통한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문화접변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는 공간과 시대를 넘어 다양하고 계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현지주민을 포함하여 관광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외래 관광객은 가장 광범위하고 빠르게 문화접변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현지주민과 외래 관광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외래 관광객의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문화와

관련된 현지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어릴 적 올바른 문화 인지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태도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관광산업, 국가 경쟁력에 큰 보탬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외래 관광객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방문한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와도 많은 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과 태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왔다. 관광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지역주민의 태도야말로 관광객의 방문지 선택이나 재방문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조명환 외, 2005). 하지만 인성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8세부터 13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셋째,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문화 인식 및 태도

일반적으로 이문화 인식이라는 용어는 이문화 민감도와 이문화 능력과 같은 의미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Dodd, 1998). 문화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가 다르며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 방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odd, 2007).

이문화 인식에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적 관심은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호기심이다(Wang, 1999). 또한 이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가 생산한 문화상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란 어떤 대상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선유경향을 의미한다. 이 선유경향은 특정 측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조명환, 2003).

'이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Other Cultures)'는 문화간 태도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며, 자신과 다른 문화 및 그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수준을 결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국제관광의 활성화로 인해 관광자와 현지주민, 관광자와 관광 종사자간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유지윤 · 손대현, 2004).

2. 선행연구

이상용(2001)에 의하면, 영미 문화 지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무리 정확한 언어라도 그 문화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문화에 알맞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이 영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문제점들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실현시킬 때 비로소 성공적인 영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관광분야에서의 현지주민과 관광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광자들의 현지문화에 대한 평가(McIntosh, 2004)나 관광객과 현지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관광자의 태도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Pizam et al., 2000; Thyne, Lawson & Todd, 2006), 그리고 아시아 관광자와 호주인 간의 문화적 차이와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Lawson, Merrett & Williams(1996)는 현지주민 사회의 관광객에 대한 관용과 수용은 성공적인 관광목적지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의 국적과 문화에 대한 현지주민의 태도임을 밝혔다.

Pizam(2000)은 현지주민과 관광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강도가 높을수록 관광객은 호스트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며, 관광자와 현지주민이 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호주에서 발생하는 현지주민과 관광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Reisinger & Turner, 1998; Reisinger & Gurner, 2002). 한국인 관광객과 호주의 서비스 제

공자 사이의 인식차이에 관한 이들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는 관광자와 현지주민 사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Ⅰ.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Ⅱ.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사 설계

본 조사에 이용 설문지는 설계를 위해 문헌조사와 사전테스트(Pre-test)를 거쳐 작성하게 되었다.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민태일(2002), 고주분(2002), 박정미(2006), 김상태 · 김덕기(1997), 이상용(2001)의 논문의 설문을 참고해 '인구통계적 특성' 7개 문항, '이문화 흥미도' 4문항, '이문화 교육 참여도' 7문항, '이

문화 인지도' 8문항,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13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했다. 도출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됐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지가 밀집되어 외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서귀포시 초등학생 중 어느 정도 인성 및 태도가 형성된 5~6학년학생들로 한정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총 460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나 이 가운데 몇 개의 항목에서 응답이 없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1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적 총계분석인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했다.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고, <표 2>에서는 외국 경

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의 높음 비율이 외국 경험이 없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의 높음 비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7	49.8
	여성		209	50.2
학년	5학년		236	56.7
	6학년		180	43.3
외국 경험	유		64	15.4
	무		352	8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27	42.2
	1주일 이상		24	37.5
	1개월 이상		13	20.3
방문 목적	관광		49	76.6
	친지방문		7	10.9
	어학연수		2	3.1
	기타		6	9.4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87	22.1
		자영업	60	15.2
		농림어업	56	14.2
		서비스업	119	30.2
		기타	72	18.3
	어머니	공무원	63	16.6
		자영업	66	17.4
		농림어업	36	9.5
		서비스업	136	35.9
		기타	78	20.6
계			416	100

〈표 2〉 외국 경험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이문화 인지도		전체(%)	x2 p값
		낮음	높음		
해외경험	없음	185(53.9%)	158(46.1%)	343 (100.0)	9.268
	있음	20(32.8%)	41(67.2%)	61 (100.0)	.003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3.33	.909	.826	2.210 (73.664%)	.820
	외국어 수업이 재미있다.	3.29	.873	.762		
	이문화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3.50	.789	.623		
KMO= .668 Chi-Square=494.545 sig= .000 총 분산설명력=73.664%						

2)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에서는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6,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889.282 (sig=.00)으로 유의했다.

〈표 4〉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학습 기회성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3.00	.776	.660	3.398 (48.549%)	.767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이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는다.	3.49	.753	.602		
	학교 외국어 수업시간 외에 이문화에 대해 배운 기회가 있다.	3.12	.713	.647		
	학교 밖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3.49	.700	.502		
적극적 참여성	외국어 학습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3.44	.824	.729	1.003 (14.333%)	.734
	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본다.	2.44	.805	.665		
	외국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8	.698	.597		
KMO= .826 Chi-Square=889.282 sig= .000 총 분산설명력=62.882%						

3)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에서는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5,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914.687(sig=.00)으로 유의했다.

〈표 5〉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요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이문화 인지도	외국인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이해 할 수 있다.	2.71	.875	.765	3.156 (63.111%)	.850
	외국인들의 일상회화를 이해할 수 있다.	2.75	.867	.752		
	이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3.08	.790	.624		
	외국인을 직접 만나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22	.766	.587		
	외국의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다.	2.75	.654	.428		
KMO= .825 Chi-Square=914.687 sig= .000 총 분산설명력=63.111%						

4)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에서는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901,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2578.674(sig=.00)으로 유의했다.

〈표 6〉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사회적 기여도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국가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	3.84	.768	.663	5.989 (46.068%)	.889
	외래 관광객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	3.68	.750	.692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3.54	.731	.583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3.74	.718	.608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3.53	.714	.659		
	외래 관광객 증가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늘어나게 한다	3.58	.678	.694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3.48	.671	.639		
적극성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할 마음이 있다	3.42	.825	.703	1.676 (12.895%)	.840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등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3.47	.797	.707		
	외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관광객에게 언어소통이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다	3.24	.786	.683		
	나는 외래 관광객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3.70	.725	.654		

호의성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	2.95	.849	.762	1.077 (8.288%)	.645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3.25	.683	.695		
KMO= .901 Chi-Square=2578.674 sig= .000 총 분산설명력=67.251%						

3. 연구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표 8>에서 나타나듯이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가지 요인 모두 비교적 높은 T값을 보였으며 이는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이문화 인지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성별	남	2.69	.885	-4.709	.000***
		여	3.11	.940		
	학년	5학년	2.94	.989	.906	.366
		6학년	2.85	.862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외국 경험	유		3.47	1.037	5.315	.000***
		무		2.80	.881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37	.986	.273	.762
		1주일 이상		3.49	.896		
		1개월 이상		3.63	1.383		
	방문 목적	관 광		3.55	.997	1.012	.394
		친지방문		2.94	1.050		
		어학연수		4.10	.141		
		기 타		3.27	1.406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2.85(a)	.967	4.448	.002***
			자영업	2.92(ab)	.978		
			농림어업	2.72(a)	.913		
			서비스업	3.19(b)	.876		
			기타	2.66(a)	.928		
		어머니	공무원	3.12(b)	.897	6.065	.000***
			자영업	2.54(a)	.985		
			농림어업	2.54(a)	.845		
			서비스업	3.07(b)	.819		
			기타	2.97(b)	1.030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유의수준에서함)

〈표 8〉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2.56	.822	-8.794	.000***
		높음	3.32	.905		
	학습 기회성	낮음	2.43	.732	-11.418	.000***
		높음	3.36	.883		
	적극적 참여성	낮음	2.65	.837	-7.040	.000***
		높음	3.29	.955		

주1) *** p<0.01

2) 가설 2의 검증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인지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인지도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초등학생인 점으로 미뤄보아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해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이문화 인지도	낮음	3.30	.747	-9.168	.000***
		높음	3.96	.662		
적극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3.03	.863	-10.715	.000***
		높음	3.92	.800		
호의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2.78	.889	-7.740	.000***
		높음	3.45	.851		

주1) *** p<0.01

3) 가설 3의 검증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 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고, 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방문 기간과 목적의 경우 표본의 특성상 외국여행 의사결정에 저 관여자인 것으로 이 후 가설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성별	남		3.51	.778	-3.226	.001***
		여		3.76	.747		
	학년	5학년		3.63	.811	-.064	.949
		6학년		3.64	.719		
	외국 경험	유		3.90	.751	2.996	.003***
		무		3.58	.76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98	.587	.275	.761
		1주일 이상		3.83	.837		
		1개월 이상		3.86	.924		
	방문 목적	관 광		3.95	.752	.537	.659
		친지방문		3.69	.470		
		어학연수		4.14	.202		
		기 타		3.64	1.102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59(ab)	.783	2.398	.050**
			자영업	3.46(a)	.795		
			농림어업	3.59(ab)	.717		
			서비스업	3.80(b)	.706		
			기타	3.61(ab)	.767		
		어머니	공무원	3.64(ab)	.698	2.582	.037**
			자영업	3.40(a)	.835		
			농림어업	3.56(ab)	.728		
			서비스업	3.74(b)	.759		
			기타	3.72(b)	.718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 유의수준에서함)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적극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 어머니 직업에 따른 적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적극성이 나타났다.

〈표 1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적극성	성별	남	3.29	.932	-3.903	.000***
		여	3.65	.926		
	학년	5학년	3.48	.967	.035	.972
		6학년	3.47	.918		
	외국 경험	유	3.79	.877	2.926	.004***
		무	3.42	.9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80	.815	.078	.925
		1주일 이상	3.75	.905		
		1개월 이상	3.88	1.025		
	방문 목적	관 광	3.79	.880	.226	.878
		친지방문	3.79	.699		
		어학연수	4.50			
		기 타	3.71	1.1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적극성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34(ab)	.899	3.636	.006***
			자영업	3.42(abc)	.942		
			농림어업	3.64(bc)	.909		
			서비스업	3.70(c)	.857		
			기타	3.25(a)	1.071		
		어머니	공무원	3.51	.906	.862	.487
			자영업	3.31	1.081		
			농림어업	3.66	.907		
			서비스업	3.50	.944		
			기타	3.51	.894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 a=.05)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학년보다 6학년이 높은 호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호의성	성별	남	3.04	.964	-1.399	.163
		여	3.17	.892		
	학년	5학년	3.02	.956	-2.053	.041**
		6학년	3.21	.885		
	외국 경험	유	3.55	1.031	3.775	.000***
		무	3.03	.889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호의성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60	1.049	.486	.617
		1주일 이상		3.40	.932		
		1개월 이상		3.73	1.201		
	방문 목적	관 광		3.58	1.033	.334	.800
		친지방문		3.43	.932		
		어학연수		4.00	.000		
		기 타		3.25	1.370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02(a)	.854	5.818	.000***
			자영업	3.07(a)	.890		
			농림어업	2.75(a)	1.058		
			서비스업	3.41(b)	.887		
			기타	2.97(a)	.926		
		어머니	공무원	3.21(bc)	.901	4.882	.001***
			자영업	2.96(b)	.890		
			농림어업	2.58(a)	.898		
			서비스업	3.16(bc)	.947		
			기타	3.33(c)	.900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 a=.05)

<표 13>에서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와 <표 14>에서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는 모두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적극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3.41	.750	-6.568	.000***
		높음	3.90	.716		
	학습 기회성	낮음	3.27	.711	-10.566	.000***
		높음	4.00	.659		
	적극적 참여성	낮음	3.24	.617	-16.775	.000***
		높음	4.25	.554		

주1) *** p<0.01

〈표 14〉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적극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3.03	.857	-11.947	.000***
		높음	4.00	.764		
	학습 기회성	낮음	2.70	.550	-29.497	.000***
		높음	4.25	.519		
	적극적 참여성	낮음	3.16	.855	-9.107	.000***
		높음	3.95	.874		

주1) *** p<0.01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호의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호의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2.95	.867	-3.788	.000***
		높음	3.30	.975		
	학습 기회성	낮음	2.88	.803	-5.029	.000***
		높음	3.33	1.000		
	적극적 참여성	낮음	2.90	.857	-5.670	.000***
		높음	3.42	.954		

주1) *** p<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며, 더 나아가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이문화의 인지도에 따라서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릴 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이를 토대로 이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올바른 태도를 신장하여 국제 사회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이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인지도와 태도간의 상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해 연구대상을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설정하고,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 이문화 인지도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 항목의 척도 개발 및 이문화 인지도 측정에 있어서 이문화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동완(2001) · 고주분 (2002), 초등영어 외국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상태 · 김덕기(1997), 관광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운동 실천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대한관광경영학회 2007년 정기학술발표대회.

민창기(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관광 · 레저연구』, 20(4), 159-177.

민태일(2002), 초등 영어 교과의 문화영역 지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정미(2006), 중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변찬복 · 조선배(2010).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19(4), 261-272.

유지윤 · 손대현(2004), 국제관광자의 이문화적 상호작용의 통합적 모델 구축,『관광학연구』, 28(1), 205-225.

이상용(2001), 초등 영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영미 문화 지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조명환(2003), 휴양관광지와 유적관광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과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구, 『관광 · 레저연구』, 15(1), 183-199, 재인용.

조명환 · 장희정(200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지리산 청학동과 안동 하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 · 레저연구』17(1), 133-154, 재인용.

Dodd, C. H.(1998),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th ed.), New York: McGraw Hill.

Dodd, C. H.(2007), Intercultural readiness assessment for pre-departure candidat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6(2),

1-17.

Gudykunst, W. B.(1983), Toward a Typology of Stranger-Hos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sultural Relations*, 7, 401-413.

Lawson, R., Merrett, T., & Williams, J.(1996),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pecial emphasis on New Zealand, *Department of Marketing*, University of Otago, Dunedin.

McIntosh, A. J.(2004), Tourists' appreciation of Maori culture in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25, 1-15.

Pizam, A., Uriely, N., & Reichel, A.(2000), The Intensity of Tourist-Host Soci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s on Satisfaction and Change of attitudes: the Case of Working Tourists in Israel. *Tourism Management*, 21, 395-406.

Reisinger, Y., & Turner, L.(1998),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Mandarin-speaking toursits and Australian hosts and their impact on cross-cultural tourist-host interac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2, 175-187.

Thyne, M., Lawson, R., Todd, S.(2006), The use of conjoint analysi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ross-cultural exchange between hosts and guests, *Tourism Management*, 27, 201-213.

Wang, N.(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Wiseman, R. L., Hammer, M. R, & Nishida, H.(1989), Predictor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3), 349-370.

WTO(2001), Seoul declaration on peace and tourism, *The 14th general assembly in Korea/Japan*, Sep. 9. 23-27. Seoul.

Abstract

A Study of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ourists According to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gwipo

Ko, Min-Jeong* · Kang, Jae-Jeong** · Suh, Yong-Kun***

We live in the world where people regularly contact with diverse cultures. Nations have their own cultures which change and develop constantly. Therefore, people change their perceptions and recognitions about these cultures. These perceptions are formed through a lifetime of experience. So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and form the right attitudes towards other cultures. However, there has been only few studies.

It was learn that students who visit abroad have more recognitions about other cultures and through these recognitions have more positive attitude and goodwill toward international Tourists.

The result of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notice how their students understand other cultures correctly. Therefore, students could understand and learn about cultural diversity and importance. Also other organs of educational system should support the cultu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College of Economics&Commerce Je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College of Economics&Commerce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College of Economics&Commerce Jeju National University

difference and value of other cultures.

Key Words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International tourists, Attitudes

교신 : 서용건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yong@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11. 03.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